

60억 vs 3400만원... 사학 편파 지원 논란

“횡령 등 물의에도 10억 이상 지원...비협조 재단은 홀대”

광주교육청 “환경개선 심의위원회에서 절차 밟아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재단에 지원 하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특정 재단에 과도하게 준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의 시책에 협조적이지 않은 일부 재단을 홀대하거나 일부 문제가 있는 법인에 거액을 지원하는 등 기준이 고부줄 것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광주지역 35개 사립학교 법인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모두 666억1730만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60억원을 지원한 법인이

있는가 하면 고작 3400만원 지원에 그친 곳도 있다.

학교 수가 4개와 1개라는 법인 규모와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더라도 지원액 수 차이가 176배에 달해 편파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별로 6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곳이 1곳, 30억~50억원 6곳, 20억원대 5곳, 10억원대 14곳, 10억원 미만 9곳 등이다. 일부 법인은 2년 6개월 동안 지원액이 1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J학원이 2년 6개월 동안 60억8172만원을 지원받아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가

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갔다. D법인이 48억1172만원으로 2위, C법인은 39억 3567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4위 S법인 36억8887만원, 5위 M법인 35억6343만원, 6위 S법인 35억5875만원 순이다.

반면 B법인은 3455만원, M법인은 5100만원, J법인은 1억7875만원 등의 지원에 그쳐 커다란 대조를 보였다.

이처럼 차이가 많은 예산 지원에 합리적인 기준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일부 학교법인들의 주장이다.

10억원 이상 거액을 지원받은 법인 가운데 최근 검찰의 수사 대상이거나 횡령이나 부정채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인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른 법인은 30년이 지나 낡고

소음이 심한 교실 문짝과 바닥을 교체하려고 수년 동안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한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는 “교육청이 학생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를 선심 쓰는 것처럼 주는 바람에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최대한 공평하게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법인 간 지원액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안 사업에 대한 요구를 받으면 현장을 방문해 시급성을 따져 점수를 매긴 뒤 교육환경개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순위를 결정해 지원 한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4 해질 18:04
달출 21:43 달짐 11:04

마지막 늦더위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았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19/27	보성	구름많음	16/26
목포	구름많음	18/26	순천	구름많음	19/28
여수	구름많음	20/27	영광	구름많음	16/27
나주	구름많음	16/28	진도	구름많음	17/20
완도	맑음	18/27	전주	구름많음	18/26
구례	구름많음	16/27	군산	구름많음	17/25
강진	구름많음	17/28	남원	구름많음	16/27
해남	구름많음	16/27	속산	구름많음	17/23
장성	구름많음	16/26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	남~남서	0.5
	면바다	남동~남	0.5~1.0	남~남서	0.5~1.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	서~북서	0.5
	면바다(동)	북서~북	0.5~1.0	서북~서	0.5~1.0
서부	면바다(서)	북동~동	0.5~1.0	북동~동	1.0~1.5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07	05:02
22:41	17:42	
여수	05:31	12:06
18:03	--:--	

주간 날씨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	☁	☁	☁	☁	☁	☁
20/21	13/17	10/20	11/21	12/22	11/22	11/22



생활지수

- 식중독: 관심
- 자외선: 보통
- 파부질현: 보통



“한글창제 고맙습니다”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글문화 큰잔치’에서 시민들이 한글문화연대가 설치한 571돌 한글날 시민 꽃 바치기 조형물에 장미꽃을 꽂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학업 중단 고교생 1696명

광주·전남 100명당 1.31명 꼴...학업 관련 이유 최다

지난해 광주·전남 고교생 1696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광주지역 고교생은 816명, 전남 지역 고교생은 880명이었으며, 학업중단율은 광주와 전남지역이 각각 1.31%로, 학생 100명당 1.31명꼴로 학업을 그만둔 것이다.

학업중단 이유는 광주의 경우 학업 관련이 109명(1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의 출국 89명(10.9%), 질병 52명(6.4%), 대인관계 12명(1.5%) 등이었다.

전남은 학업 관련이 165명(18.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의 출국 72명(8.2%), 가사 49명(5.6%), 질병 42명(4.8%) 등의 순이었다.

노웅래 의원은 “매년 많은 고등학생이 학업중단을 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폭력과 같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장애인 거주시설 가교행복빌라 새 출발

인권침해·보조금 횡령 의혹 물의...새 이사진 구성

인권침해와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물의 <광주일보 7월24일 8면>를 빛낸 장애인 거주시설 가교행복빌라가 새 출발 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A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사회는 지난해 말 공개채용에서 임은주 광주 동구장애인복지관 전 사무국장을 장애인 거주 시설장으로 채용하고 법인 정이사 9명을 선임했다. 이로써 법인은 정이사 체제를 갖췄다.

신임 이사는 학계, 법조계, 종교계, 장애인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3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광주 북구 지

역사회보장협의체 추천을 받아 선임됐다.

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A법인이 임시이사 7명을 파견해 물의를 일으킨 법인 임원 해임 의결, 인권침해 가담 조사자 조사, 시설 운영위원회 정비 등 과정을 거쳤다.

가교행복빌라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수당 등 보조금 횡령 의혹이 일어 시민사회의 비난을 샀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 상당수는 일명 ‘도가니 사건’ 배경이었던 인화학교와 같은 재단 산하 복지시설에서 옮겨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경찰-해경 ‘섬 치안’ 공백 없앤다

공동 대응체계 구축...파출소 없어도 112 신고시 출동

전남경찰이 해양경찰과 함께 전국 섬의 65%가 몰려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서 맞춤형 종합 치안대책’을 추진하고, ‘섬 치안 공백’을 없애기로 했다.

전남경찰청은 특히 해양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경찰 파출소나 해경파출소가 없는 섬에서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섬에서 가까운 근무자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에는 유인도 279곳, 무인도 1886곳 등 2165여개의 섬이 있으며, 경찰 파출소가 있는 섬은 22곳, 치안센터가 있는 섬은 47곳 등 총 69곳에 불과하다. 이 중 58곳에는 해양경찰이 상주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만 파견돼 있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은 해당 지역경찰서와 해양경찰서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

도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또 치안 인프라 확충, 인권보호 강화, 관리체계 구축 등 3대 도서 맞춤형 종합치안활동도 전개한다.

전남경찰청은 이를 위해 1인 근무지인 치안센터의 상시근무체계 유지를 위해 16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인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섬지역 자율방범대와 도서지킴이 활동도 재정비하고 있다. 섬에 거주하는 여교사, 보건진료원 근무자 등 여성 안전을 위해 최대 5명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스마트위치 지급 사업도 확대중이다.

강성복 전남경찰청장은 “맞춤형 치안 대책을 마련하고, 치안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는 등 도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내달부터 65세이상 틀니 본인 부담 50%→30%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낮아진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 본인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한다. 빈곤층의 노인틀니 본인 부담률도 차

상위계층 노인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의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떨어진다. 복지부는 그동안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계속 확대해왔다. /박진표기자 lucky@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온에너지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